

연결망 분석을 통한 학습사회 연구동향 분석*

신훈희** · 이희수*** (중앙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국내, 해외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학습사회의 주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연구내용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며, 주제어 연결망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66년부터 2017년까지 총 50년간 발간된 국내 94개의 논문 및 해외 187편의 학술지 논문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도별 발행 논문 수는 1994년도부터 2017년까지 학습사회 관련 논문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었으며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폭넓은 영역에서 학습사회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국내, 해외 학습사회 주제어 연결망은 작은 세계의 특징을 가지는 분절되지 않는 형태를 지남에 따라 주제어들이 연결 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모듈 커뮤니티 분석으로 분류한 국내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의 하위 구조 분야는 6개의 분야로 평생교육, 체제와 모형, 대학과 지역사회, 학습,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동향의 하위구조 분야는 7개의 분야로 평생교육, 제도적 교육, 교육정책,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학습, 교육정책, 환경, 분석과 협동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의 커뮤니티는 국내보다 다양한 연결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인교육자는 지속가능한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놓고 폭넓은 논의를 하여야 한다. 국내의 학습사회 연구가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 분야처럼 폭넓은 연구와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학습사회, 사회 연결망 분석, 주제어 연결망 분석, 주제어

I. 서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습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습사회에 대한 논의도 확장되고 있다(Ahmed, 2014). 학습사회 담론에서는 제도적으로 통제되는 학교교육 안에서 단순히 정해진 지식 공급을 뛰어넘어 학습자가 자력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 그 자체를 강조한다(Husén, 1974). 학습사회의 핵심은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인 가소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 있다(Field, 2000). 이렇게 개인 학습자에게서 시작 된 변화가 사회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학습사회이다. 학습사회에 관한 논의는 학습으로 변화하는 사회 시대의 속성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신훈희(2018)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asmint@cau.ac.kr

*** 교신저자, heesu@cau.ac.kr

학습사회는 1968년 Hutchins(1968)가 자신의 저서인 『The Learning Society』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자유로운 학습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로 정의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학교교육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Hutchins의 학습사회 담론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았다(Griffin & Brownhill, 2014). Hutchins의 학습사회론을 필두로, 교육과 학습에 대한 논의가 학교 밖에서, 제도 밖으로, 그리고 사회 전체로 확장되면서 만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가장 잘 담아내는 학습사회가 하나의 담론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학습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교육학 내에서도 학습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학습사회로 연결되었다(고영상, 2007; 김민호, 2014; 김장호, 2003; 이상오, 2012; 이희수 외, 2000; 조대연, 2009; 한승희, 2009; Ahmed, 2014; Boshier, 1980; Coffield, 2000; Edwards, 1997; Faure, 1972; Green, 2000; Griffin & Brownhill, 2014; Husén, 1974; Hutchins, 1968; Ranson, 1998; Su, 2010; Welton, 2005; Young, 1999).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습사회에 관한 많은 담론들은 주로 어떠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 초에 이루어진 학습사회에 대한 연구는 UNESCO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학습사회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이를 전인적 교육이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이념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특색을 보였다(한승희, 2010). 학습사회의 논의들은 평생교육 이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점을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은 개념적 쟁송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동적 개념(한승희, 2000)이며 학습사회의 개념도 이와 같이 수행성과 정의의 담론(이희수 외, 2000; Hughes & Tight, 1995; Strain & Field, 1997) 아래에서 성장하였다.

학습사회는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논의되거나(Van der Zee, 2006) 학습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미래주의, 민주주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논의하여 왔다(Griffin & Brownhill, 2014). 그리고 현실 사회에 구체적인 이론을 적용시키는 영역으로 이어졌다(Coffield, 2000). 최근에는 학습사회의 논의가 확장되어 글로벌 사회에서 학습을 사회변화의 핵심으로 보아 개인과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Jarvis, 2007).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영역에서는 평생교육, 학습운동, 학습사회 개념으로부터 진화한 학습도시가 지속가능한 학습도시의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다(Watson & Wu, 2015). 학습사회의 논의가 발전하면서 이론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장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학습사회 논의는 1980년대의 UNESCO에서 기원하여 발전하였다. 1995년에 5.31 신교육개혁방안을 통해 신교육체제아래 비전을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제시하면서 정책 용어로 학습사회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희수 외, 2000). 이른바 ‘Edutopia’는 다소 학습사회의 이상적 비전을 담고 있으며, 이후 평생학습도시와 학점은행제가 정책으로 다양하게 제안되고 실현된 데에는 이와 같은 학습사회 맥락이 자리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념으로서의 학습사회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보해왔다.

학습사회의 연구는 학습의 원리를 통하여 변화해야 할 모형으로 실재하는 국가 체제를 논의하

기도 한다(Green, 2000). 학습사회의 논의를 이끈 Edwards(1997)가 밝힌 학습사회론에서는 학습사회를 ‘교육된 사회’, ‘학습시장’, ‘학습 네트워크’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교육된 사회 모습으로부터 학습시장의 모습을 지나쳐 학습 네트워크를 향해가는 현재 사회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학습사회로 진화하는 국가체제의 논의는 국내에서는 이희수 외(2000)가 분류한 3세대로 이루어진 학습사회 모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학습사회의 주체는 국가와 시장에서 시민사회로 옮겨가야 한다(Edwards, 1997).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습사회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일정 부분 성취했으나 학습과 시민의 각각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김민호, 2014) 현재 사회는 시민중심의 네트워크 학습사회를 이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급변하는 세대에서 글로벌 사회, 네트워크 사회, 지속가능한 학습사회의 환경변화에서도 국내의 사회모습은 시장중심의 사회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학습사회가 국가체제(이희수 외, 2000; Edwards, 1997; Green, 2000), 정책(Faure et al, 1972; Coffield, 2000), 글로벌 사회(Jarvis, 2007), 지속가능한 학습도시(Watson & Wu, 2015) 등 다양한 이론적 지형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개념적 쟁송성 아래에서 학습사회는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의 매개체로서 다른 학습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다(Su, 2010). 즉 학습사회 이념들이 학습의 원리를 통하여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습사회에 대한 연구는 이론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대적 환경 변화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별 학자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다양성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함은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학습사회를 주제로 한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학술지 인용정보 색인(KCI)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시스템(RISS)에서 검색한 결과, 92편이며 해외의 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ERIC)에서는 187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물 가운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학습사회 연구(meta research)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학습사회에 대한 연구동향의 파악이 어려워 미래에는 어떠한 학습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방향도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을 파악한다면 현재 사회에 요구되는 학습은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학습사회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해외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제어 연결망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정 학문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들은 주로 전통적인 내용 분석과 같이 사전에 설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주제의 출현 빈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보다 중심을 둬으로써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김연경, 신선애, 송해덕, 2017; 박치성, 정지원, 2013).

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주제어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분석하며,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구조적 의미를 해석한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부 구조 확인을 가능케 하는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사회의 하위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학습사회 연구의 주

요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하위 범주와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사회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와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는 어떠한 동향을 보이는가? 둘째, 학습사회 주제어 연결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셋째, 학습사회 연구동향의 하위구조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습사회의 의미

‘학습사회’는 Hutchins의 『The Learning Society』(1968)에서 시작하였다. Hutchins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과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교육의 무능에 대한 대응으로 학습사회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학습사회를 “모든 사람이 언제 어느 때라도 성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달성 및 인간적인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제도가 그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 같은 가치의 전환에 성공한 사회”(Hutchins, 1968: 134)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학습사회의 기원은 부적절한 교육시스템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문화적 가치와 인본주의적 철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Griffin & Brownhill, 2014). 교육을 도구적 수단이 아닌 인본주의 철학 관점에서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비전으로서 새로운 체제의 학습사회를 제시한 것이다.

Husén(1974)은 학교는 더 이상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광범위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usén의 학습사회는 미래학, 과학기술 관점에서의 학습사회 철학을 담고 있다(Griffin & Brownhill, 2014). 새로운 기술인 영화, 텔레비전, 해외여행 등을 기반으로 지식의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듯이 실현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계획, 지식, 정보와 생산의 결과로 학습사회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Hutchins의 인본주의적 비전이나 Husén의 미래학적인 비전과 달리 Boshier는 근본적인 민주적 입장의 학습사회 개념을 제시하였다. Boshier(1980)는 성인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육제도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비형식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일생 전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의 통합적인 제공을 기반으로 학습사회를 제시하였다. 자율적 개인과 자기주도 학습자의 개념이 민주주의의 개념이며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Griffin & Brownhill, 2014). 학습사회는 제공되는 교육체제가 아닌 학습자가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사회임을 의미한다.

학습사회가 출현한 이후에 여러 학자들과 국제기구에서 학습사회에 대한 담론을 이어갔다. 먼

저 UNESCO의 위원장이었던 Faure(1972)의 주도 하에 발행된 포르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교육체제의 위기와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평생교육과 함께 학습사회를 제시하였다. 학습사회의 목적은 전인적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Faure, 1972). 이러한 Faure의 보고서는 사회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학습사회라는 열개 하나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된다(이희수, 2001). 평생교육의 이념인 학교 안팎의 수평적, 전 생애의 학습인 수직적 통합을 구현한 것이 UNESCO의 학습사회이다.

한편 지식기반경제론을 배경으로 하여 OECD와 World Bank는 UNESCO와는 또 다른 형태의 학습사회를 제시하였다. 경제적 성장과 개인 및 사회의 발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이 확립된 사회를 언급하고 있다(OECD, 2001). World Bank의 경우에도 OECD와 상당히 유사한 관점으로 학습사회를 바라보았다. World Bank는 학습사회에 대하여 지식경제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지속해야 하는 사회라고 강조하였다(World Bank, 2003).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에는 전인 교육을 강조하는 UNESCO의 학습사회관이 지배적이었으나 글로벌화, 정보화, 지식기반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시기에는 OECD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 신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교육관이 주도권을 잡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희수, 2001). 한편 학습과 학습사회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취하는 관점에 반발하여 학습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학습사회가 형성된다는 주장도 생겨났다(Su, 2010). 이는 학습사회가 다양한 외부 시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외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닌 내적인 학습의 가치를 등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학습사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운실(2002)은 학교중심의 제도적 교육관의 변화를 전제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기관이 학습을 위한 장소가 되는 사회를 학습사회라고 하였다. 김장호(2004)는 평생에 걸친 학습체제가 마련되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이희수(2003)는 모든 사회 구성 요소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사회를 학습사회라고 보았다. 또한 학습사회를 평생 언제라도 자유롭게 학습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간주하고 학습사회의 특성에 따라 ① 국가 주도 교육 형태인 제1세대 계몽주의 학습사회형, ② 제2세대 시장 중심 학습사회형, ③ 제3세대 시민 중심 네트워크 학습사회형으로 분류하였다(이희수 외, 2000). 조대연(2009)의 경우, 학습사회는 초월성, 대중성, 지원·관리·평가체계 구축을 학습사회의 세가지 특징이라고 밝히며, 학습사회에서 학습은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생활, 성장, 성숙을 위해 학습이 일상화 되는 개방적·생활적 가치로 전환된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학습사회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재정의 되기도 한다. 한승희(2006)는 평생학습사회란 사회적 학습관리 기제의 다양한 양식 가운데 하나로, 학습사회는 학습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일상화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이 사회적 구성원리가 되고 이러한 학습

의 변화를 통하여 사회의 양식이 변화가 초래되는 사회이다(한승희, 2006).

지금까지의 학습사회에 대한 논의가 사회 속에서 학습의 모습을 찾으며 과거에 있었던 사회적 학습을 재해석하거나 현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 학습의 형태를 묘사하고 분류하는 데에 치중했다면 한승희(2009)의 학습사회는 학습으로 사회를 해석하려는 관점을 견지한다. 학습사회란 인간의 학습, 교육, 제도 등이 일종의 생태계적 특성을 띠면서 사회 자체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해 가는 특징을 가진 사회이다(한승희, 2009: 113). 다시 말하면 학습을 중심에 두고 학습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 및 재편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읽어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거대한 지평을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실험적 시도로서 학습 생태계적 관점을 채택하였다.

총체적 학습사회라는 용어도 새로이 등장하였다. 총체적 학습사회는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이 합쳐진 형태를 보인다. 총체적 학습사회란 지식기반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평생학습이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김장호, 2003).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이 가능할 것인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틀 또는 관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첫째, 초기의 학습사회는 기존 학교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실험적 형태로 제시되었다. 교육기관의 경계와 학령기의 제한 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학습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추구한 것이다

둘째, 초기 학습사회의 형태와는 달리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학습사회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두가 학습하는 사회라는 이상향을 넘어서서 학습사회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주체의 특성 및 취하고 있는 관점에 따라 학습사회의 이상향과 목적, 추구하는 가치 등이 구체화되고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사회의 모습은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예를 들어, UNESCO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학습사회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학습경제론에 입각하여 학습의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여 학습의 가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OECD와 World Bank에서는 사회변화와 혼란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인력이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학습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학습자들의 모습으로 학습사회를 그렸다. 그밖에도 민주적인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사회, 어떠한 목적 지향도 없이 학습 자체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습하는 사회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셋째, 최근에는 학습사회를 단순히 해석해야 할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이론 틀(conceptual framework), 즉 교육학 연구에서 사회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렌즈로 바라보고 있다.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학습 이론으로 학습사회라는 현상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학습 사태를 포착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학습사회를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2. 학습사회의 발전과 쟁점

학습사회는 학습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논의되어왔다. Hutchins(1968)의 학습사회의 기원은 부적절한 교육시스템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습사회에서 교양주의적 평생교육을 말하였으며 교육투자론에 반대하였다. Hutchins와 학습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사회로서의 학습사회를 논의하였다(Griffin & Brownhill; 2014). 즉 인간의 참된 가치의 실현을 통한 이상향을 내세웠다.

학습사회는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담으면서 자율성과 자기주도 학습자의 상을 견지하므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Alheit, 1999; Griffin & Brownhill, 2014). 민주주의, 참여, 시민권의 가치 철학에 따라 발전해온 학습사회의 개념은 인본주의, 미래주의 철학관점의 학습사회와는 다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Edwards(1997)는 세 가지 학습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시민성에 대한 재정의나 어떠한 제도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오늘날의 논의들은 쟁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관점들에 대하여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적 학습사회는 Ranson(1998)의 학습사회 논의에서도 다뤄진다. Ranson은 적극적인 시민정신의 형성과 도덕적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을 개발하는 기초가 되는 조건 제공을 통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민주적 학습사회를 말하였다(이희수, 2001). Ranson의 학습 가치와 학습 과정이 사회의 핵심원리가 되어야 하며 시민권과 실천적 이성으로 조직원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Welton(2005)의 저서 『Designing the Just Learning Society』에서는 이전의 논의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으로 학습사회를 이야기한다. 이전까지의 학습사회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 가치와 측정에만 매몰되어 학습사회의 본질은 무시된 채 부수적인 논의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Welton이 제시한 학습사회의 틀은 사회적 정의, 세계적인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Welton이 차용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은 사회란 시스템이자 생활세계로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Welton은 이를 비판적 이론의 틀로 사용하면서 각각을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의 지향점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인간 행동, 유대감, 의의의 원천이 되는 생활세계를 통해 의사소통 행위가 일어난다고 덧붙인다. 교육적 관점으로 보자면 생활 세계는 행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도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포지션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학습 공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을 통한 학습사회 논의에서도 민주화는 강조되었다. 미래사회에는 자격증명을 갖춘 사람의 공급과잉이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며 직업시장에서 자격증명을 갖춘 교육을 무기로 활용하는 경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Livingstone, 2013). 이에 Livingstone(2013)은 하향취업이 사회문제로 발생하며 이때 효과적인 해결책은 고학력 노동자들이 기술과 지식을 직장에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의 재분배, 노동의 민주화를 통하여 개혁하는 것이

라 하였다.

국내에서 김민호(2014)는 학습사회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완한 민주적 학습사회를 논의하였다. 교육은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음을 전제한다. 학습사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정치적 관점을 통하여 학습사회에 접근한다. 무엇보다 국가나 시장의 권력에 대항하여 '학습자의 시민권적 권한'을 구현하는 것이고, 국가나 시장의 요구를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시민 학습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김민호, 2014). 이러한 상호 보완은 시민성(citizenship)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어 시민사회를 유지해야 하는데 시민성 학습과 병행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남아 있는 반시민적, 비시민적 의식을 탈학습화(unlearning)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민호, 2014). 이는 학습사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학습하는 시민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학습사회로 볼 수 있다.

학습사회의 연구는 다양한 학습의 원리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각 시대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요구되었던 학습을 통해 이룩하려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 앞선 문헌 검토를 통하여 학습사회를 다룬 수많은 연구에 내재되어 있는 학습과 사회에 대한 관점은 매우 분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사회를 바라보는 분절된 연구 관점을 한데 모아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학습사회를 통합적으로 바라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습사회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학습사회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요구되었던 학습과 사회를 가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학습사회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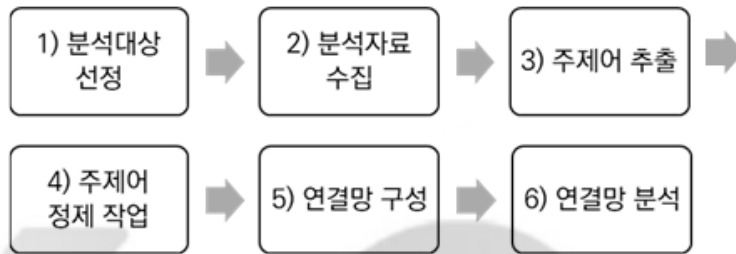
사회 연결망 분석은 중요한 연결망을 연결하여 그 연결망 안에서 발생하는 정보 공유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패턴을 가시화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전략적 도구이다(Cross, Borgatti, & Parker, 2002). 이러한 연결망은 특정한 사회적 실체인 행위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사회의 연구에 대하여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연구절차를 설정하기 위하여 그 중 평생교육 및 인접학문의 연결망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표 1>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1〉 연결망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범위 및 대상	노드의 정의	관계의 정의	분석방법	분석도구
현영섭 (2011)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HRD 및 평생 교육 연구동향	수집된 학술논문의 제목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연구자 선별	동일한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	개념 연결망 분석 블록 모델 연결중앙성 Spring-Ed 방식	NetMiner
김영환 정주훈 강두봉 박경민 김상미 (2015)	『평생학습사회』의 연구주제 변화 동향. 『평생학습사회』의 2005년 부터 2014년 까지 게재된 논문	『평생학습사회』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를 드러내는 의미 단어인 주제어	동일한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	주제어의 빈도 분석 연결 중앙성 군집분석	KrKwic, NetMiner
박지영 이희수 (2016)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연구 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논문의 주제어	동일한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	빈도수 분석 중심성 분석	NetMiner
허균 (2016)	플립러닝 연구 동향에 대한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플립 러닝과 관련된 학술 연구물	연구제목 및 주제어에 플립러닝 포함	동일한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NetMiner Ucinet
김동렬 (2017)	자주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초등 환경교육의 연구 동향 탐색. 2009, 2007 개정 교육과정 각론 적용 시기의 초등 환경교육 관련 학술논문	‘초등 환경교육’ 주제로 검색되는 학술논문의 자주 주제어를 분석	동일한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	NetMiner
김연경 신선애 송해덕 (2017)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국내 수행공학의 연구동향 탐색	논문의 주제어	동일한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	연결중심성, 에고네트워크 분석	Krtext NetMiner
김영환 이승민 강두봉 (2017)	부모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학술지 검색 주제로 부모 교육, 부모 코칭, 부모 역량 강화로 검색	제목, 저자, 초록에 2회이상 사용된 주제어	동일한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	동시출현빈도 및 중심성 분석 근접중심성	Krkwic NodeXL
김종훈 최우식 정미라 (2017)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1,506개 논문의 3,437개 주제어를 대상	한국유아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유아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제시된 주제어	동일한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	네트워크 중앙성과 구조적 속성을 분석	NetMiner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어 연결망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은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결망 분석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노드는 대부분의 경우 주제어를 정의 내렸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제목, 초록에서 주제어를 연구자가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관계의 정의의 경우 모두 동일한 논문에서 주제어가 등장하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공출현 빈도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결망의 구조적 속성을 분석한 이후 대부분 중심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군집분석, 블록모델링 등으로 세부구조를 보거나 개별 에고네트워크 분석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구 도구의 경우 대부분 NetMiner, Ucinet, KrKwic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제어 연결망 분석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노드의 정의를 논문에서 제시한 주제어를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관계의 정의를 동일한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공출현 빈도 방식을 사용하였다. 교육학 연구 분야에서 연결망의 분석방법은 결속 분석, 중심성 분석, 구조적 등위성 및 공백 분석, 하위집단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현영섭, 2017). 연구의 분석 방법은 빈도수 분석, 구조적속성 분석, 중심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많은 주제어가 제시되는 연결망에서 하위 집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듈 커뮤니티 분석(Newman, 2006)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2. 연구대상 및 범위

1) 연구대상

학습사회와 관련된 국내, 해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의 관련 학술지 및 학술DB를 활용하여 학술논문을 수집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시스템(RISS)을 통하여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은 국내 학술지, 논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게재논문에 대한 학술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제공한다. 다만 2000년도 이전의 학술지, 논문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시스템으로 2차 검색을 진행하였다. 해외의 경우 광범위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ERIC)에서 연구를 검색하였다. 연구는 동료평가과정을 거쳐 발간된 학술지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도구로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한 웹 크롤링으로 논문 데이터를 1차적으로 학습사회, learning society를 제목, 주제어로 하는 논문을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국내의 논문은 KCI에서는 총 71편을 수집하였으며, RISS에서는 추가로 23편을 수집하여 총 94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의 논문은 ERIC에서 총 187편을 수집하였다.

3) 자료 정제 작업

수집된 국내 논문의 경우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제어 목록을 만들고 먼저 정제화 작업을 하였다. 주제어에 사용된 언어는 한글, 영어로 나뉘지며 국내논문은 한글로 해외 논문은 영어주제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논문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용어를 한글로 해외 논문은 영어로 진행하였다. 이때 주제어가 없는 논문의 경우 제목을 활용하여 주제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적으로 주제어 목록을 만든 후 주제어가 없는 논문의 경우 제목을 활용하여 주제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해외 논문의 경우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Automap 3.0을 통하여 정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전 목록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수집된 논문의 주제어를 활용하여 정제 작업하였다. 단,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주제어는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체제’등의 주제어로 변경하였다. 수집한 모든 논문이 학습사회를 주제어로 가지고 있기에 학습사회와 Learning Society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논문-주제어로 연결된 행렬은 이원행렬(two-mode matrix)이다. 이러한 행렬을 주제어-주제어로 구성된 공출현빈도 일원행렬(one-mode matrix)로 변환하여 연결망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4) 연결망 분석 방법

연결망 분석의 방법은 질적 자료에서 함께 제시되는 개념이 서로 연결망을 맺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를 코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연결망 구성은 노드를 주제어로, 관계를 한 논문에 등장한 모든 주제어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제어를 공출현 빈도를 활용한 행렬을 작성하여 연결망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논문에 ‘평생교육’, ‘성인학습자’, ‘대학평생교육’이 주제어로 제시되었으면 행과 열에는 모두 ‘평생교육’, ‘성인학습’, ‘대학평생교육’을 작성하고 그 성분으로는 동시에 등장한 빈도수를 기재하여 구성한다. 따라서 연결망은 값을 가진 연결망(valued network)을 가지게 된다.

분석은 빈도 분석, 구조적 속성 분석, 시각화, 중심성 분석, 커뮤니티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빈도 분석은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Automap 3.0을 통하여 사전 목록을 만들고 그에 따른 공출현 빈도 행렬을 작성 후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은 UCINET 6을 이용하여 구조적 속성 분석,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각화 및 커뮤니티 분석은 효과적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Gephi 9.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시 주제어 의미순환구조 방식(Paranyushkin, 2011)을 사용하여 연결망을 표현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빈도 분석

1) 시기 빈도 분석

이 연구는 국내와 해외의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66년부터 2017년까지의 학습사회에 관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도별 논문의 빈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학습사회 논문 빈도

발행년도	국내		해외		발행년도	국내		해외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1979	0	0.0%	7	3.7%	1999	4	4.3%	14	7.5%
1980	0	0.0%	1	0.5%	2000	2	2.2%	11	5.9%
1981	2	2.2%	1	0.5%	2001	3	3.3%	5	2.7%
1982	1	1.1%	2	1.1%	2002	2	2.2%	4	2.1%
1983	0	0.0%	0	0.0%	2003	3	3.3%	5	2.7%
1984	0	0.0%	3	1.6%	2004	3	3.3%	9	4.8%
1985	0	0.0%	2	1.1%	2005	8	8.7%	4	2.1%
1986	0	0.0%	0	0.0%	2006	5	5.4%	12	6.4%
1987	0	0.0%	1	0.5%	2007	4	4.3%	10	5.3%
1988	1	1.1%	2	1.1%	2008	6	6.5%	13	7.0%
1989	0	0.0%	2	1.1%	2009	6	6.5%	8	4.3%
1990	0	0.0%	0	0.0%	2010	5	5.4%	6	3.2%
1991	0	0.0%	1	0.5%	2011	5	5.4%	9	4.8%
1992	0	0.0%	1	0.5%	2012	2	2.2%	4	2.1%
1993	0	0.0%	1	0.5%	2013	6	6.5%	4	2.1%
1994	0	0.0%	2	1.1%	2014	5	5.4%	5	2.7%
1995	1	1.1%	3	1.6%	2015	2	2.2%	7	3.7%
1996	3	3.3%	3	1.6%	2016	4	4.3%	7	3.7%
1997	2	2.2%	4	2.1%	2017	5	5.4%	4	2.1%
1998	2	2.2%	10	5.3%					
합계						92	100%	187	100%

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1981년도 2편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92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국내의 학술지 논문은 1981년도부터 1993년까지 5개의 논문만 발간되었으나 1994년도 이후 연구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학습사회 논문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해외의 학술지 논문의 경우 1979년도 7편을 시작으로 1993년까지 총 24개의 논문만 발간되었

으나 1994년도 이후에는 논문이 증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외의 학습사회 논문은 2017년까지 총 187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국내와 해외 모두 1994년도 이후 논문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10년 이후 논문 편수가 감소하였으나 학습사회를 주제로 한 논문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는 국내보다 해외의 논문 숫자가 약 2배로 많이 발간되었다.

2) 주제어 빈도 분석

분석대상의 논문에서 추출하여 정제한 국내 주제어는 총 398개였다. 국내 학습사회에 관련한 논문의 주제어 빈도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국내 학습사회 논문의 주제어는 평생교육 26회, 평생학습 16회, 체제 12회, 방안 10회, 실현 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의 논문에서 추출하여 정제한 해외 주제어는 총 1,148개였다. 해외 학습사회에 관련한 논문의 주제어 빈도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해외 학습사회 논문의 주제어는 lifelong learning 167회, education 115회, learning 80회, adult education 63회, higher education 49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습사회 국내 주제어 빈도 분석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평생교육	26	평생교육법	5	과제	3
평생학습	16	활성화	5	관점	3
체제	12	교육	4	교육복지	3
방안	10	방향	4	구현	3
실현	9	성인학습자	4	민주시민교육	3
학습	9	역할	4	비교분석	3
대학	8	인적자원개발	4	사회교육	3
구축	7	평생교육정책	4	의미	3
모형	6	평생학습도시	4	정부	3
열린	5	학습경제	4	정책	3
영국	5	개혁	3	평생교육제도	3
추진전략	5	고등교육	3	학습조직	3

<표 4> 학습사회 해외 주제어 빈도 분석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lifelong learning	167	politics	20	educational philosophy	13
education	115	analysis	19	environment	13
learning	80	programs	19	knowledge	13
adult education	63	adult	18	public policy	13
higher education	49	student	17	surveys	13
educational policy	46	educational environment	16	access	12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educational	45	elementary	16	design	12
educational change	36	language	16	policy	12
society	31	postsecondary education	16	relationship	12
role	27	case studies	15	study	12
community	25	educational practices	15	training	12
global approach	24	educational trends	15	citizenship	11
adult learning	22	futures	15	cooperation	11
development	21	school	15	sustainable development	11
social change	21	social	14		
continuing education	20	adult students	13		

2. 학습사회 주제어 연결망의 구조적 속성

먼저 국내, 국외의 학습사회 연구동향에 관한 주제어 연결망의 특성을 나타내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연결망을 비교하였을 때 국내보다 해외의 연결망이 노드수와 관계수가 많았다. 하지만 해외의 평균 경로거리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도도 국내보다 해외의 연결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경우 주제어가 초점에 맞추어 명확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주제어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분류	국내	해외
노드수	398	1,148
관계수	3,949	51,322
평균경로거리	2,899	2,103
지름	5	4
평균 관계수	9.92	44.564
밀도	0.025	0.039
연결중심성집중화지수	0.052%	0.028%
사이중심성집중화지수	28.32%	22.32%

3. 개별 노드 중심성 분석

국내, 해외의 학습사회의 중심성은 <표 6>과 같다. 연결중심성은 ‘평생교육’ 0.055, ‘평생학습’ 0.039, ‘체제’ 0.035, ‘방안’ 0.035, ‘대학’ 0.0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학습사회 연결중심성은 ‘lifelong learning’ 0.029, ‘education’ 0.023, ‘learning’ 0.015, ‘adult education’

0.011, ‘educational’ 0.010로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를 통해 학습사회에 대한 국내와 해외 연구 모두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평생교육(education)’이 공통적인 핵심 주제어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은 연결중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 분석 결과를 보면 학습사회 연구의 국내 주제어는 ‘체제’, ‘방안’, ‘실현’, ‘모형’, ‘추진 전략’ 등과 같이 나타나,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거시적 실천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국내의 학습사회 연구는 해외 사례로는 영국을 주제로 삼은 연구를 중심으로 다른 주제와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는 ‘lifelong learning’, ‘adult education’ 등 다양한 교육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사례연구가 주요 주제어로 연결되고 있었으며, 미래 의제인 ‘sustainable development’ 등의 주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다.

〈표 6〉 학습사회 주제어 중심성 분석

국내 주제어	연결 중심성 (표준화)	근접 중심성 (표준화)	매개 중심성 (표준화)	해외 주제어	연결 중심성 (표준화)	근접 중심성 (표준화)	매개 중심성 (표준화)
평생교육	0,055	0,53	28,701	lifelong learning	0,029	0,8	22,398
평생학습	0,039	0,511	21,267	education	0,023	0,706	11,057
체제	0,035	0,49	17,133	learning	0,015	0,663	8,198
방안	0,025	0,46	11,184	adult education	0,011	0,642	5,717
대학	0,023	0,454	9,886	educational	0,01	0,611	3,207
학습	0,021	0,45	6,679	educational policy	0,009	0,616	3,21
실현	0,019	0,45	4,948	higher education	0,009	0,609	3,726
모형	0,015	0,415	4,46	role	0,007	0,578	1,515
평생교육법	0,014	0,423	1,487	educational change	0,007	0,591	2,14
추진전략	0,014	0,437	1,753	development	0,006	0,563	0,971
구축	0,013	0,44	3,867	community	0,006	0,533	0,226
평생학습도시	0,012	0,385	2,551	society	0,005	0,57	1,339
성인학습자	0,011	0,401	4,133	analysis	0,004	0,56	1,221
활성화	0,011	0,387	2,653	adult learning	0,004	0,558	0,673
열린	0,011	0,37	2,866	adult	0,004	0,553	0,718
영국	0,01	0,409	0,688	environment	0,004	0,533	0,392
학습경제	0,01	0,395	2,216	programs	0,004	0,551	0,662
정부	0,01	0,385	4,164	continuing education	0,004	0,552	0,677
정책	0,009	0,409	0,922	student	0,004	0,553	1,09
평생교육정책	0,009	0,381	1,335	global approach	0,004	0,563	1,179

국내 주제어 중 ‘대학 평생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능’, ‘촉진’과 해외주제어 중 ‘distance education’, ‘college student’는 근접중심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낮은 주제어들로 나타났다. 이는 주제어가 비교적 현재 적게 연구되고 있지만 다른 연구와 확산될 수 있는 주제

임을 나타낸다. 국내 주제어 중 ‘평생학습도시’, ‘정부’, ‘평생교육정책’, ‘인적자원개발’, ‘지역커뮤니티’, ‘파트너십’, ‘사례연구’ 주제어와 해외주제어 중 ‘language’, ‘resources’ 주제어는 주변과 연결중심성은 높으나 근접중심성은 낮은 주제어이다. 이는 다른 주제어와의 현재 연구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연구주제가 확산되기는 어려운 주제임을 나타낸다.

국내 학습사회 주제어 중 ‘기업’, ‘네트워크’, ‘원격교육’과 해외 학습사회 주제어중 ‘technological advancement’, ‘teaching methods’, ‘storage’, ‘educational innovation’, ‘questionnaires’는 매개중심성은 높으나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결이 적으며 확산될 수 있는 많은 연결을 가진 주제는 아니지만 매개 중심성이 높은 주제로 확인되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주제들은 하위의 세부 영역들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국내 학습사회 주제어중 ‘열린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학교특별활동’, 학습자 중심의 주제어와 해외 학습사회 주제어중 ‘resources’, ‘evaluation’, ‘psychology’, ‘indigenous’, ‘labor’, ‘library’는 근접중심성은 높고 매개중심성은 낮은 주제어이다. 상대적으로 학습사회에 관련하여 다른 주제와 함께 연구되기 쉬우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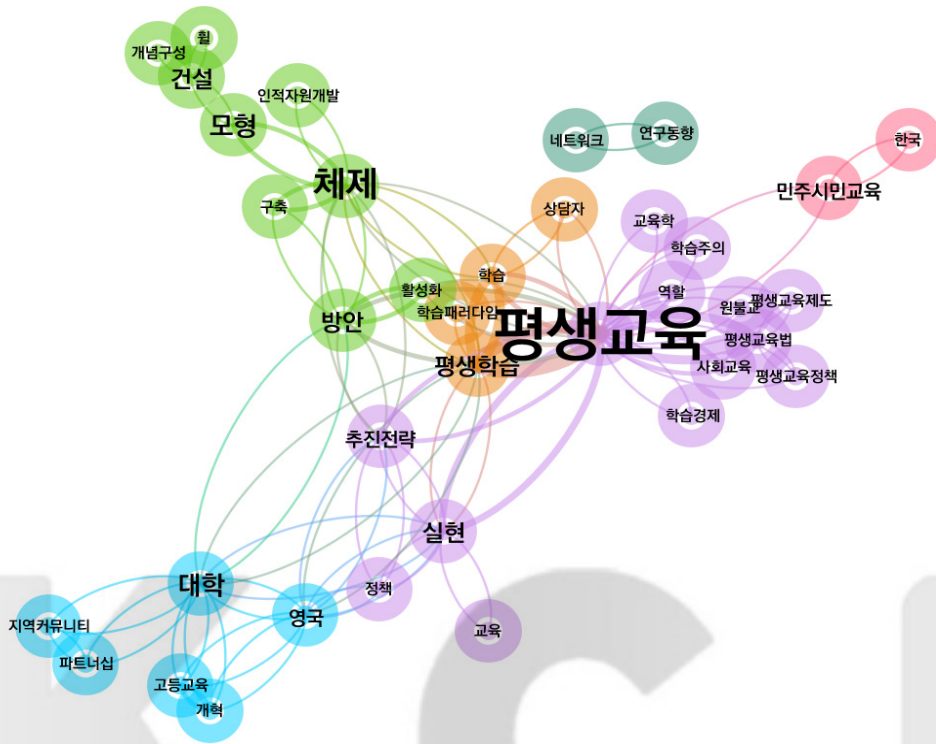
4. 학습사회 연구동향의 하위 구조 분석

1) 국내 학습사회 커뮤니티 분석

커뮤니티 분석은 국내의 학습사회 주제어 연결망의 경우 명확한 하위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2이상의 강도를 가진 연결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모듈성 Q는 0.389이며 커뮤니티 수는 6개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결망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연결망의 하위 구조인 커뮤니티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국내 주제어 연결망 커뮤니티 분석

커뮤니티	노드(매개 중심성 순서)
1 (네트워크)	네트워크, 연구동향
2 (체제와 모형)	체제, 모형, 건설, 방안, 개념구성, 구축,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휠
3 (대학과 지역사회)	대학, 영국, 개혁, 고등교육, 지역커뮤니티, 파트너십
4 (평생교육)	평생교육, 실현, 추진전략, 평생교육법, 교육, 교육학, 사회교육, 역할, 원불교, 정책,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제도, 학습경제, 학습주의,
5 (학습)	평생학습, 학습, 상담자, 학습패러다임
6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한국



[그림 2] 학습사회 국내 연구동향 커뮤니티 분석

모듈 커뮤니티 분석으로 분류한 커뮤니티를 주제어를 중심으로 범주화 하였다. 가장 큰 4번 커뮤니티는 학습사회의 핵심적인 학문적 주제어 ‘평생교육’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평생교육’, ‘교육’, ‘교육학’과 같이 전반적인 학습사회의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2번 커뮤니티에는 ‘체제’, ‘모형’, ‘건설’, ‘구축’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실질적 모형으로서의 학습사회가 하나의 주제로 나타났다. 3번 커뮤니티에는 ‘대학과 지역사회’로 ‘영국’의 사례와 ‘고등교육’, ‘지역커뮤니티’, ‘파트너십’의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5번 커뮤니티는 ‘학습’으로, ‘평생학습’과 ‘학습패러다임’, ‘상담자’의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6번 커뮤니티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학습사회와 관련하여 ‘한국’, ‘민주시민교육’을 주제어로 가지고 있다. 1번 커뮤니티는 ‘네트워크’로 ‘네트워크’ 및 ‘연구동향’을 주제어로 가지고 있다.

체제와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2의 경우, 매개 중심성이 큰 ‘체제’ 주제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모형’, ‘건설’, ‘개념구성’, ‘휠’이라는 주제어를 통해 구체적인 학습사회 모형인 휠 모형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안’, ‘활성화’ 노드는 학습사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제어 ‘방안’은 커뮤니티 4(평생교육)의 주제어인 ‘추진전략’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 학습사회 구축방안은 평생교육의 추진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인적자원개발’이 ‘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3은 ‘대학’, ‘영국’, ‘개혁’, ‘고등교육’, ‘지역커뮤니티’, ‘파트너십’이란 6개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 관계가 중요함을 암시한다. ‘대학’은 커뮤니티 2(체제와 모형)의 ‘방안’과 연결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과 학습사회 체제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 3(대학과 지역사회)과 커뮤니티 4(평생교육)가 ‘영국’과 ‘정책’, ‘추진전략’과 연결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정책과 추진전략에 있어서 대부분 영국에서 논의된 연구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커뮤니티 6은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과 ‘한국’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 커뮤니티 6의 노드들은 ‘평생교육’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을 뿐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결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다른 노드들과의 다양한 연결이 아닌 ‘평생교육’주제어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4는 ‘평생교육’, ‘실현’, ‘추진전략’, ‘평생교육법’ ‘교육’등을 포함한다. 커뮤니티 4의 노드들은 다른 커뮤니티의 노드와도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평생교육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학습사회의 다른 연구주제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커뮤니티 5는 ‘평생학습’, ‘학습’, ‘상담자’, ‘학습패러다임’과 같이 학습과 관련되는 연구주제가 노드로 포함되었다. 해당 커뮤니티의 노드들은 커뮤니티 2의 ‘체제’와의 연결을 보이고 있다.

2) 해외 커뮤니티 분석

모듈 네트워크 분석은 해외의 학습사회 주제어 연결망의 경우 명확한 하위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10 이상의 강도를 가진 연결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모듈성 Q는 0.237이며 커뮤니티 수는 7개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결망은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연결망의 하위 구조인 커뮤니티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모듈네트워크 분석으로 분류한 커뮤니티를 주제어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각각의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분석과 협동', '제도적 교육', '교육정책', '환경', '학습', '평생교육'의 의미를 가진 주제어를 공유하며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해외 전체 연결망 구조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지름이 더 작은 밀도 있는 연결망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보다 더 많은 연결이 비교적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7은 'lifelong learning', 'adult education', 'adult learning', 'adult', 'adult students' 등의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커뮤니티 7(평생학습)은 다른 커뮤니티와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lifelong learning' 주제어가 중심이 되어 연결되고 있었다.

커뮤니티 6은 '학습'을 중심으로 'learning', 'case studies', 'educational environment' 등의 노드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6(학습)은 커뮤니티 1(지역사회와 민주주의), 커뮤니티 3(제도적 교육)과 커뮤니티 7(평생학습)과 근접하여 연결되어 있었다. 연결망들은 특정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연결되기보다는 'learning' 과 'community', 'learning'과 'lifelong learning' 등의 주제어들과 직접적인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

커뮤니티 1은 'community', 'community education', 'democratic values' 등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의 연구 주제를 나타낸다. 주변의 커뮤니티 6(학습), 커뮤니티 3(제도적 교육), 커뮤니티 7(평생교육)과 연결되고 있었다. 중심에는 'programs'주제어가 중앙에서 다른 커뮤니티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3은 '제도적 교육'을 중심으로 'education', 'role', 'society', 'educational change', 'higher education' 등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3(제도적 교육)은 연결중심성이 높지 않은 주변부적 주제어들을 포함하여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 5는 '환경'을 중심으로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sustainable development'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환경은 고립된 연결망 형태를 띠어 다른 주제어와 연결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nvironment'와 커뮤니티 3(제도적교육)의 'role'이 연결되어 핵심적인 매개 주제어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4는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educational', 'educational policy', 'design', 'development', 'educational philosophy', 'global approach'의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커뮤니티4(교육정책)는 커뮤니티 7(평생학습)과 커뮤니티 3(제도적 교육)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들이 다른 커뮤니티 아래의 주제어들과 매우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학습 사회의 논의에서 교육정책 주제어가 중요한 매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 2는 'analysis', 'cooperation', 'international', 'regression'의 노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과 협동에 대한 연구로 범주화되어 있다. 커뮤니티 2(분석과 협동)는 비교적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적고 고립된 연결망 형태를 띠어 다른 주제어와의 연결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습사회와 관련한 논문에서 추출한 주제어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66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KCI 및 RISS에 게재된 논문 94편과 주제어 정보 398개를 추출하고 해외 ERIC에 게재된 논문 187편과 주제어 정보 1,148개를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주제어들은 국내는 한국어로, 해외는 영어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발행 논문 수는 국내 및 해외의 학술지 논문의 경우 모두 1994년도 이전까지는 연구가 미비하게 진행되어왔으나 1994년도 이후 연구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2017년까지 학습사회 관련 논문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둘째, 학습사회 주제어 연결망의 구조적 속성은 국내보다 해외의 학습사회 연결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의 주제어 연결망이 높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학습사회에 대한 연구가 국내의 경우 해외보다 주제의 폭이 더 좁아 중앙에 집중화된 경향을 보인다. 멀리 있는 노드도 허브들로 인하여 전체 세상에 가까워 질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습사회의 주제어 연결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주변과 주제어와의 연결이 많은 연계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국내와 평생교육’, ‘평생학습’, ‘체제’, ‘방안’, ‘대학’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는 ‘lifelong learning’, ‘education’, ‘learning’, ‘adult education’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 모두 학습사회는 평생교육 이념을 담고 논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들은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또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모듈 커뮤니티 분석으로 분류한 국내,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동향의 하위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국내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의 하위 구조 분야는 6개의 분야로 ‘평생교육’, ‘체제와 모형’, ‘대학과 지역사회’, ‘학습’,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동향의 하위구조 분야는 7개의 분야로 ‘평생교육’, ‘제도적 교육’, ‘교육정책’,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학습’, ‘교육정책’, ‘환경’, ‘분석과 협동’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동향의 하위 구조는 가장 큰 커뮤니티가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영역과 ‘정규교육’, ‘대학’, ‘개인 학습’, ‘교육 정책’,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학습사회와 관련한 논문에서 추출한 주제어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해외의 학술지 논문의 경우 1994년도 이후에는 논문이 증가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학습사회가 논의된 이래로 1994년부터 논의가 확장되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Alheit, 1999; Edwards, 1997)와 일치한다. 또한 많은 주제의 연구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을 타다보니 연구주제들이 사라질 수 있는 반면 학습사회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구들을 가능케 할 가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대상에서 추출한 주제어들의 빈도수를 통하여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은 평생교육을 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평생교육 이념을 공유하여 학습사회가 논의되던 선행연구(이희수, 2001; Faure, 1972)와 일치한다. 그러나 주제어들은 평생교육 이외에 교육의 전 영역에 걸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환경, 시민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다양한 주제어를 가지고 학습사회를 연구하고 있었다. 학습사회의 연구영역이 실현가능한 모형으로서 학습사회 연구를 논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학습사회 주제어 연결망의 구조적 속성은 국내보다 해외의 학습사회 연결망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도 해외의 주제어 연결망이 높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학습사회에 대한 연구가 국내의 경우 해외보다 주제의 폭이 더 좁아 중앙에 집중화된 경향을 보여 해외의 연구동향과 같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습사회의 주제어 전체연결망은 국내와 해외 모두 복잡계적 성격으로 좁은 세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가까운 노드들은 군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멀리 있는 노드도 허브들로 인하여 전체 세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무작위적 연결이나 단순히 많은 연결의 수로 정해지는 연결망의 특성은 아니다(Barabasi, 2002). 연결망의 속성 중 매개중심성이 높은 노드들이 이러한 중요한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사회의 주제어 연결망은 국내와 해외의 경우 모두 평생교육 이념을 담고 논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사회의 담론에서는 평생교육이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들은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또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중심성이 높으나 근접중심성이 낮은 주제어들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정부’, ‘평생교육정책’,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사례연구’와 해외에서 ‘language’, ‘resources’는 많은 주제어 연결이 있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제어가 확산되기는 어려운 주제어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학 평생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과 해외에서는 ‘distance education’, ‘college student’는 현재는 주제어 연결이 적지만 추후 연구로 인하여 쉽게 다른 주제어와 연결이 확산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요소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이희수, 2003). 또한 기존의 Husén(1974)이 제시하였던 미래학적 학습사회 철학처럼 현시대에서도 미래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원격교육을 통한 참여와 학습사회를 함께 연구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은 연구되고 있지 않아 연결중심성이 낮은 연구들, 예를 들어 학습사회에서 ‘대학평생교육’, ‘college student’와 다른 학습사회 주제어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연결하는 연구가 나온다면 새로운 이론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성의 특징은 구조적 공백의 관점(Burt, 1992)에서 의의를 가진다. 국내의 학습사회 주제어 중 연결중심성은 낮지만 매개중심성이 높은 ‘기업’, ‘네트워크’, ‘원격교육’과 해외 학습사회 주제어 중 ‘technological advancement’, ‘teaching methods’등이 구조적 공백으로서 주변의 연구주

제를 이어주고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는 주제어임을 시사한다.

셋째, 모듈 커뮤니티 분석으로 분류한 국내,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동향의 하위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국내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의 하위 구조 분야는 6개의 분야로 '평생교육', '체제와 모형', '대학과 지역사회', '학습',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동향의 하위구조 분야는 7개의 분야로 '평생교육', '제도적 교육', '교육정책',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학습', '교육정책', '환경', '분석과 협동'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동향의 하위 구조는 가장 큰 커뮤니티가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영역과 정규교육, 대학, 개인 학습, 교육 정책,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가장 큰 '평생교육' 커뮤니티와 '영국'과 '정책' 주제어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학습사회 연구는 영국정책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럽의 학습사회 연구(Green, 2000)처럼 다양한 나라의 학습사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학습사회 연구 주제어중 '체제와 모형' 커뮤니티는 '평생교육'과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제도', '평생교육정책' 주제어와는 직접적인 연결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 활성화 방안 등이 법, 제도, 정책과 연결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시민교육' 커뮤니티는 아직 학습사회의 구현에 있어서 다른 커뮤니티들과 활발한 수준에서 연결되고 있지 않다. 또한 해외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나 시민의식 같은 주제어는 중심에 있기 보다는 주변부적 위치에 놓여 있어 연결된 연구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Welton, 2005), 다른 연구들과의 연결점이 없다는 점에서 학습사회의 연구주제에서 같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기존의 민주주의 철학 관점에서의 학습사회(Boshier, 1980)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 참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의 커뮤니티는 다양한 연결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국내의 학습사회 연구가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 분야처럼 폭넓은 연구와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외의 학습사회 연구는 '교육정책' 커뮤니티가 비교적 큰 매개를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 커뮤니티가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주제어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환경' 커뮤니티의 주제어인 'sustainable development'가 비교적 최근 연구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Torres, 2013) 연결망의 연결이 다른 주제어와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성인교육자는 지속가능한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미 시작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 지를 놓고 폭넓은 대화를 해야 한다(Watson & Wu, 2015). 따라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부족한 연구 영역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 해외 학습사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자료의 수집 면에서 국내, 해외의 모든 학습사회 연구물들을 다루지는 않았다. 서적으로 나타난 학습사회 연구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해외의 모든 학술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에 동향분석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둘째, 이 연구는 주제어 정제과정에서 논문의 저자가 선정한 주제어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주제어 정제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제어는 국내, 해외의 표기 방법에 따라 동일한 의미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연구 분석상의 한계를 지닌다. 셋째, 연결망 분석의 특성상 하위 커뮤니티 구조가 실제의 연구동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한 두 단어의 주제어가 논문의 전체연구결과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 분석상의 한계를 지닌다.

K C I

참고문헌

- 고영상(2007). 자생체제 모형에 대한 한국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지속 가능성 탐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요사업. <http://www.nile.or.kr> 에서 2017. 10. 31 인출.
- 김동렬(2017). 저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초등 환경교육의 연구 동향 탐색. 초등과학교육, 36(2), 113-128.
- 김민호(2014). 학습사회와 시민사회의 결합. 교육연구논총, 35(1), 169-188.
- 김연경, 신선애, 송해덕(2017).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국내 수행공학의 연구동향 탐색. HRD 연구, 19(1), 35-64.
- 김영환, 정주훈, 강두봉, 박경민, 김상미(2015). 『평생학습사회』의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평생학습사회, 11(1), 291-315.
- 김영환, 이승민, 강두봉(2017). 부모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네트워크 분석을 적용. 교육문화연구, 23(3), 75-94.
- 김장호(2003). 인본주의 기업패러다임과 총체적 학습사회. 직업능력개발연구, 6(2), 94-123.
- 김장호(2004).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총체적 학습사회론.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7(2), 103-129.
- 김종훈, 최우식, 정미라(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 유아교육연구, 37(3), 269-288.
- 박치성, 정지원(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19(2), 73-108.
- 박지영, 이희수(2016).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연구 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4), 1-31.
- 이상오(2012). ‘학습사회’의 성립조건: 학습생태계와 학습노마디즘. *Andragogy Today :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3), 1-33.
- 이희수 외(2000).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 발전 방안 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2001). 학습사회에서 학습경제로의 전환 논리와 그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7(1), 211-238.
- 이희수(2003). 평생교육의 진화와 지역사회교육의 갈림길. 한국교육문제연구, 18, 59-78.
- 조대연(2009).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학습사회에 대한 논의 확장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5(1), 187-206.
- 최운실(2002). 열린 평생학습사회에서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인텔리전트화. 열린교육연구, 10(2), 61-38.
- 한승희(2000). 한국의 평생교육: 실천담론의 전개와 그 쟁송지대적 성격. 평생교육학연구, 6(1), 1-20.
- 한승희(2006). 평생학습사회의 학습체제 연구를 위한 생태체제적 개념모형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2(4), 179-202.
- 한승희(2009).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승희(2010). 평생학습사회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허 균(2016). 플립러닝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8(3), 872-880.
- 현영섭(2011).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HRD 및 평생교육 연구동향: 개념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HRD 연구*, 13(4), 1-29.
- 현영섭(2017). 교육학 분야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의 적용 동향. *교육학연구*, 55(3), 1-32.
- Ahmed, M. (2014). Lifelong learning in a learning society: Are community learning centres the vehicle? In G. Carbonnier, M. Carton, & K. King (Eds.), *Education, learning, training: Critical issues for development* (pp. 102-125). Leiden, N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Alheit, P. (1999). On a contradictory way to the 'Learning Society': A critical approach.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31(1), 66-82.
- Barabasi, A. L. (2002). *Linked*. Cambridge, Mass: Perseus Publishing.
- Boshier, R. (1980). *Towards a learning society*. Vancouver, Canada: Learning press.
-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tructure of social capital competi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ffield, F. (Ed.). (2000). *Differing visions of a learning society: Research findings*. London, UK: Policy Press.
- Cross, R., Borgatti, S. P., & Parker, A. (2002). Making invisible work visible: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 support strategic collabor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4(2), 25-46.
- Edwards, R. (1997). *Changing places? Flexibility, lifelong learning and a learning society*. London: Routledge.
- Faure, E. et al. (1972). *Learning to be -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Paris: UNESCO.
- Field, J. (2000). *Lifelong learning and the new educational order*. London, UK: Trentham Books.
- Green, A. (2000). Lifelong learning and the learning society: Different European models of organization. In A. Hodgson (Ed.), *Policies, politics and the future of lifelong learning* (pp. 35-48). London: Routledge.
- Griffin, C., & Brownhill, B. (2014). The learning society. In P. Jarvis (Ed.), *The age of learning: Education and the knowledge society* (pp. 55-68).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Hughes, C., & Tight, M. (1995). The myth of the learning socie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3), 290-304.
- Husén, T. (1974). *The learning society*. London, UK: Methuen.
- Hutchins, R. (1968). *The learning society*. New York, NY: Praeger.
- Jarvis, P. (2007). *Globalization, lifelong learning and the learning society: Lifelong learning and the learning society* (Vol. 2). New York, NY: Routledge.
- Livingstone, D. W. (2013). The learning society: Past, present and future views. In P. Mayo (Ed.), *Learning with adults: A reader* (pp. 33-53). Rotterdam, Netherlands: Sense Publisher.
- Newman, M. E. (2006). Modularity and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3(23), 8577-8582.
- OECD. (2001).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educational policy analysis 2001*, Paris: OECD.
- Paranyushkin, D. (2011). Identifying the pathways for meaning circulation using text network analysis. Berlin: Nodus Labs. Retrived at: <http://noduslabs.com/research/pathways-meaning-circulation-text-network-analysis>.

- Ranson, S. (1998). *Inside the learning society*. London: Cassell.
- Strain, M., & Field, J. (1997). On 'the myth of the learning socie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5(2), 141-155.
- Su, Y. (2010). The non-instrumental vision of the learning society.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6(5), 517-530.
- Torres, C. A. (2013). *Political sociology of adult education*. Rotterdam, Netherlands: Sense Publisher.
- Young, M. (1999). Knowledge, learning and the curriculum of the future.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4), 463-477.
- Van der Zee, H. (2006). The learning society. In P. Jarvis (Ed.), *From adult education to the learning society: 21 years fro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pp. 331-353.). New York, NY: Routledge.
- Watson, C., & Wu, A. T. (2015). Evolution and reconstruction of learning cities for sustainable actions.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45(1), 5-19.
- Welton, M. R. (2005). *Designing the just learning society: A critical inquiry*. Leicester, UK: NIACE.
- World Bank. (2003). *Lifelong learning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Challenges for developing countries: a World Bank report*.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Abstract

Learning Society Research Trend Analysi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hin, Hoon Hee · Lee, Hee Su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publication trend of learning society by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A total of 94 national research articles and 187 international research articles were coll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on learning society has been steadily increased by 2017. Discussion on learning society is being studied in a wide range of areas. Second, there is a non-segmented research fields of learning society that could be connected to the main keyword. Third, sub-structures of Korean research trend of learning society classified by module community analysis composed of 6 fields: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model, university and community, learn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network. The sub-structures of international research trend of learning society appeared in 7 area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al education, education policy, community and democracy, learning, education policy, environment, analysis and cooperation. The international study of learning society community was composed of more various connections than national study. This suggests that Korean learning society research need to be broadened and expanded. Adult educators should raise awareness of change and discuss what they could do in order to create sustainable learning society.

[Keywords] Learning society, Social network analysis, Keyword network analysis, Keyword